

. 안양문화예술재단, 반성과 비움에서 출발해야 <김광남>

[2008-06-20 오후 2:14:00]

안양문화예술재단, 반성과 비움에서 출발해야

김광남/성결대 겸임교수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문제가 새로운 방향과 틀에서 재논의되고 기본 구상의 초안이 마련됐다.

안양시는 2005년에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 바 있지만, 당연직 이사장인 시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재단 설립과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이 부족하다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필운 시장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전향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걸림돌이 해소되었고, 비로소 새 출발의 시동을 걸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표방하는 안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상의 하나로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다만 출범에 앞서 그 동안 불거졌거나 간과했던 지역 문화예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술도시 안양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문화예술단체가 관변 단체의 틀을 벗고 자율성과 창조성을 갖추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그 동안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지원과 환경 속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길들여져 오랜 세월을 '온실 속의 난초'로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원금 소진을 위한 의례적 행사로 전락한 일부 문화예술 행사를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문화 권력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은 유한해도 문화 권력은 무한하다."라는 지역사회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아 놓고 내편, 내 사람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자연과 학연을 방패로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후진 양성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재단을 둘러싼 갈등에는 헤게모니를 쥐려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불신도 발단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시의 지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시가 예산지원을 내세워 지나치게 칼을 휘두르려 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단을 둘러싼 지난 3년여 간의 갈등도 결국은 여기서 비롯된 문제다. 어설픈 통제정책은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문화예술재단 출범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지만 만병통치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또한 성급하다.

모두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문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아비판과 겸허한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것이 안양의 문화권력 쟁취를 위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오히려 만병의 근원이 될 소지가 있다. 이 시장의 '불간섭' 원칙에 따라 이제 공은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로 넘어간 상태다.

문화예술은 시나 특정인,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새겨 비움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